

# 챔스필드에 내린 비... KIA 마운드엔 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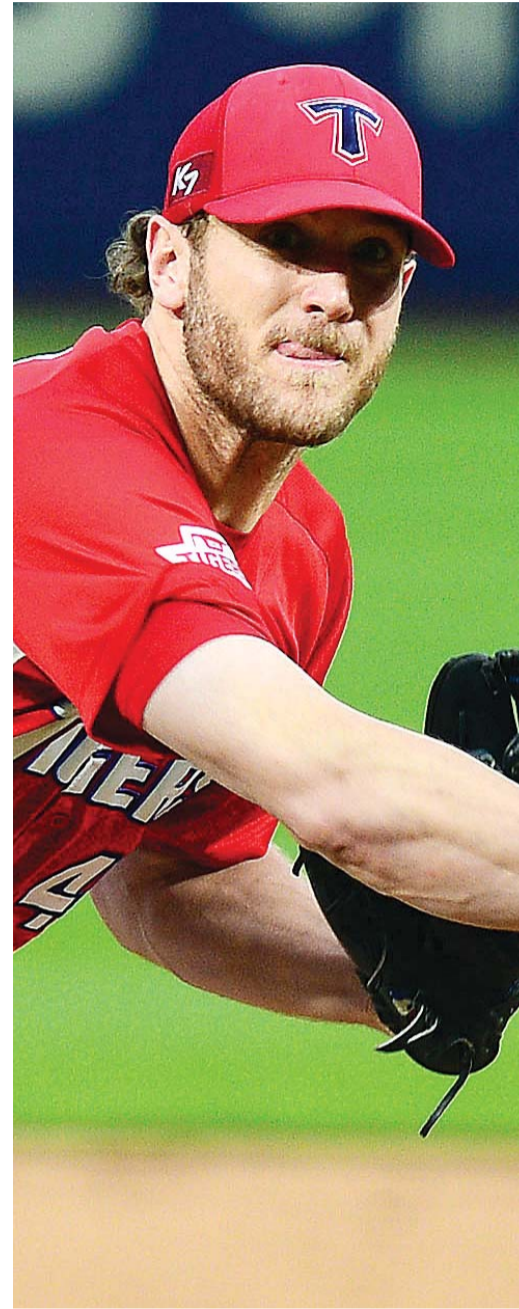
삼성전 시즌 12번째 우천 순연...7연전 강행군 속 휴식 가능-임기영-양현종 후 선발 빈자리 고민도 해결 양현종, 사직전서 7년연속 10승·100탈삼진 기록 도전

‘호랑이 군단’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다. 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비로 취소됐다. 시즌 12번째 우천취소로 이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갈 길 바쁜 KIA지만 이번 비는 한숨 돌릴 수 있는 반가운 비가 됐다. KIA는 이번 주 7연전의 강행군을 앞두고 있었다. 1·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 이어 3·4일 사직, 5·6일 대전 원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 4일 경기가 더블헤더로 진행되면서 7연전 일정이 됐다. 앞서 8월 30일 KT 위즈와의 경기를 더블헤더로 치렀던 만큼 더 부담이 많은 일정이다. 여기에 마운드의 고민도 있었다. 허리 통증으로 한 턴 쉬어간 브룩스가 지난 1일 삼성전에서 8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7연전 선발로테이션을 돌리기에 한 자리가 비었다. 가능-임기영-양현종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지만 4일 더블헤더 한 경기를 채워줄 투수가 마땅치 않았다. 양승철, 남재현 등 임시 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던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비가 한 자리를 채워준 셈이다. 하루씩 밀어 가능이 3일 경기를 책임지고, 임기영과 양현종으로 4일 더블헤더 일정을 풀어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민우에 이어 다시 한번 브룩스가 마운드에 오르게 되면 빈틈없이 KIA 선발진이 돌아가게 된다.

브룩스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오면서 윌리엄스 감독을 웃게 했다. 1일 등판해서 8이닝을 책임져준 브룩스는 마지막 8회초 1사에서 안타는 내줬지만, 병살타로 이닝을 종료하면서 100구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다. 승리와 투구수까지 동시에 챙기면서 ‘휴식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윌리엄스 감독은 “하루씩 로테이션이 밀린다. 가 능이 하루 더 쉬고 던지게 된다”며 “금요일에 더블헤더가 있기 때문에 불펜도 하루 쉬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현종은 이번 사직 등판에서 기록에 도전한다. 7년 연속 10승·100탈삼진이 양현종의 앞에 놓여 있다. 양현종은 지난 8월 28일 SK전에서 6이닝 4피안타 4사사구 9탈삼진 1실점(비자책)의 호투로 시즌 9승에 성공했다. 또 9개의 탈삼진을 더하면서 시즌 99탈삼진도 찍었다. 양현종이 사직 원정에서 승리투수가 되면 이강철(10년), 정민철, 장원준(이상 8년), 유희관(7년)에 이어 KBO 리그 역대 5번째로 7년 연속 10승을 기록한 투수가 된다. 또 첫 탈삼진을 기록하는 순간에는 이강철·장원준(이상 7년)에 이어 7번째로 7년 연속 100탈삼진 기록이 작성된다. 좌완투수로서는 장원준과 유희관에 이어 통산 3번째 7년 연속 10승이다. 7년 연속 100탈삼진은 장원준, 구대성, 류현진에 이어 4번째 기록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



양현종



가봉



임기영

## 펠리페 ‘발’은 무대를 가리지 않는다

‘K리그2’서 지난 시즌 19골 득점왕...올 리그1서 10골·18라운드 MVP

무대를 바꿔도 ‘득점왕’의 활약은 계속된다. 광주FC 펠리페는 지난 시즌 19골을 터트리면서 K리그2 득점왕을 차지했다. 광주는 펠리페의 활약으로 K리그2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며 승격의 꿈을 이뤘다. 무대를 바꾼 펠리페가 K리그1 적응을 끝내고 ‘득점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펠리페는 지난 30일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서 멀티골에 성공하면서 18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또 이날 광주 외국인 선수의 1부리그 최다 득점 기록도 갈아치웠다. 앞선 기록은 중앙파울로(2011~2012)와 완델손(2017)이 기록한 8골. 펠리페는 대구 원정서 9·10 호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새 기록을 작성했다. 매 경기 기록 경신에 도전하는 펠리페는 광주 개인 통산 득점 기록까지 동시에 갈아치우고 있다. 60경기에서 36득점을 넣은 펠리페는 나상호(18골), 정조국(20골), 김호남(23골)과 격차를 벌리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다. 시즌 초반 K리그1의 스피드와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혀 고전했던 펠리페는 개막 5경기 만에 마수걸이 골을 터트리면서 몸을 풀었다. 그리고 꾸준히 골을 쌓아가면서 K리그2 득점왕이 K리그1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승강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처음 K리그1에 도전한 K리그2 득점왕은 이근호(상주)다. 2013년 15골로 K리그2 득점 1위에 오른 그는 다음 해 K리그1에서 4골을 넣었다. 2014년에는 아드리아노(대전)가 27골로 K리그2 무대를 장악한 뒤 2015년과 2016년 K리그1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15골과 17골을 넣으며 좋은 모습을 이어갔다. K리그2 득점왕 출신으로 K리그1 득점왕까지 차지한 경우도 두 차례 있다. 2015년 대구 소속으로 K리그2 득점 1위에 올랐던 조나단(26골)은 이듬해 10골을 넣으면서 K리그1 적응을 끝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2차례 골 세리머니를 펼치면서 K리그 최초로 1·2부 리그에서 동시에 득점왕에 오른 선수가 됐다. 2017년과 2018년은 말경(경남)의 해였다. 2017년 이 22골로 K리그2 득점왕에 오른 뒤 다음 해인 2018년 K리그1에서 더 많은 26골을 터뜨리며 2년 연속 다른 무대에서 득점왕에 오르는 신



기록을 작성했다. 앞서 아드리아노, 조나단, 말경 등 K리그2 득점왕 출신들은 K리그1 첫 시즌에 모두 10골 이상을 기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K리그2를 장악했던 펠리페도 그 공식을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 울산 주니오가 무서운 기세로 득점 1위를 달리면서 펠리페의 득점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적응을 끝낸 만큼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 김광현 0점대 방어율... STL 새 역사 쓴다

신시내티전 5이닝 무실점 2승...평균자책점 0.83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데뷔전 상대인 신시내티 레즈를 제물로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김광현은 2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2020 메이저리그 신시내티와의 방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3안타와 볼넷 2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삼진은 메이저리그 입성 후 개인 한 경기 최다인 4개를 잡았다. 김광현은 소속팀이 이날 신시내티에 16-2 대승을 거두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 세인트루이스는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타선의 지원 속에 무실점 역투를 펼친 김광현은 8월 23일 신시내티전 이후 열흘 만에 승리를 추가했다. 김광현의 시즌 성적은 2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0.83이다. 7월 25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개막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1이닝 2피안타 2실점(1자책)으로 세이브를 거둔 김광현은 팀에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사이에 선발로 보직을 바꿨다. 지난 달 18일 피츠버그전에서 빅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선발 등판해 3.2이닝 3피안

타 1실점 한 김광현은 같은 달 23일 신시내티를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쳐 빅리그 데뷔 승을 거뒀다. 같은 달 28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잘 던지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김광현은 열흘 만에 다시 만난 신시내티를 상대로 시즌 2승째를 챙겼다. 김광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08에서 0.83으로 더 좋아졌다. 선발 등판한 경기 평균자책점은 0.44로 더 좋다. 야구 통계업체 스태츠 바이 스태츠는 “평균자책점을 공식 기록으로 인정된 1913년 이후 김광현의 빅리그 선발 데뷔전 포함 4경기 평균자책점 0.44는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의 0.25 이후 가장 낮은 왼손 선발 투수의 기록”이라고 전했다. 김광현은 8월 23일 신시내티전 1회부터 이날까지, 17이닝 비자책 행진도 이어갔다. 김광현은 진기록도 작성했다. 그는 빅리그 선발 데뷔전부터 이날까지, 선발 등판한 4경기를 모두 1실점 이하로 막았다. ‘데뷔전 포함 선발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 투구’는 세인트루이스 역사상 처음 나온 기록이다. /연합뉴스



## 김연경 합류하니 ‘막강 흥국생명’

여 배구 컵대회 조별리그 1위 이재영 19점·김연경 17점 폭발 현대건설과 준결승서 격돌

‘배구 여제’ 김연경(32)이 합류한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컵대회 조별리그를 1위로 마쳤다. 흥국생명은 2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제천·MG세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조별리그 순위결정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세트 스코어 3-0(25-16 25-20 25-22)으로 완파했다. A조 1위로 준결승 진출을 이미 확정된 흥국생명은 B조 3위 도로공사를 가볍게 누르고 3경기를 모두 무실세트 승리로 장식했다. 조별리그 1위를 확정된 흥국생명은 4일 오후 3시 30분 현대건설과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준결승에는 조별리그 합산 성적 1~4위가 올라 1위와 4위, 2위와 3위 간 대결로 열린다. KGC인삼공사와 IBK기업은행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4개 팀이 모두 결정됐다. 흥국생명(3승), KGC인삼공사(2승), GS칼텍스(2승 1패), 현대건설(1승 2패)이 준결승 티켓을 손

에 넣었다. 이미 2패를 당한 IBK기업은행은 KGC인삼공사를 꺾을 경우 1승 2패로 현대건설과 승수가 같아지지만 세트 스코어 3-0으로 승리한다고 해도 세트 득실률에서 현대건설에 뒤져 탈락이 확정됐다. 도로공사 역시 3패로 앞쪽 짐을 썼다. 흥국생명은 ‘국가대표 듀오’ 이재영과 김연경이 각각 19점, 17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김연경의 밀어 넣기 공격으로 24-20, 매치 포인트를 만든 흥국생명은 24-22에서 김연경이 경기를 매조졌다. 앞선 경기에서는 GS칼텍스가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3-1(22-25 25-18 25-13 25-20)의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